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

# 모 두 말 씀

2025. 9. 19. (금)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익 원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융권을 대표하는 여러 협회장님들과 함께,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역과 업종별로 벤처,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산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부, 유관기관, 금융 수요자 및 공급자가  
머리를 맞대고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하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II. 생산적 금융 대전환

---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는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하여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자금은 시중 자금의 전환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의 주역이 될 벤처 기업을 위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후금융 공급부터 관련 인프라의 확충까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전면적인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립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오늘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6조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겠습니다.

건전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  
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의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감독 등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거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지나치게  
단기 수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에 새로운 조달·운용수단인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하면서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역할 재정립, 일반주주 권익 강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들과 함께,  
금융권 협회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유인구조가  
시중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지  
한국 금융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작업도  
병행하겠습니다.

### III. 마무리말씀

---

여러분!

오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추진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프로젝트를 “정교하게 선별”하고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금융의 선구안입니다.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공을 많이 보아야 하듯이,  
금융의 선구안도 금융 수요자인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선구안을 제고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